

WEEKLY



startup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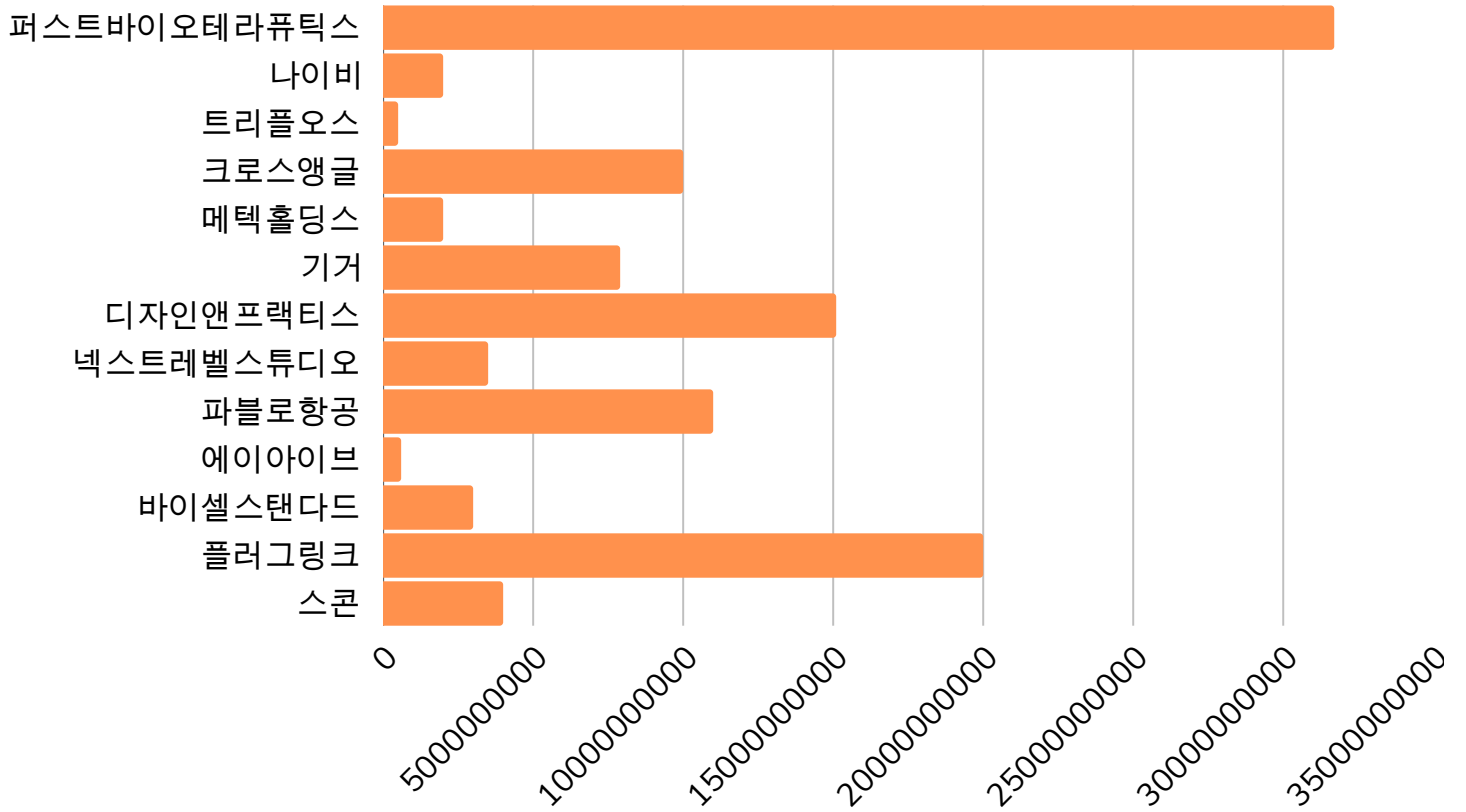
RECIPE FOR STARTUP

STARTUP REC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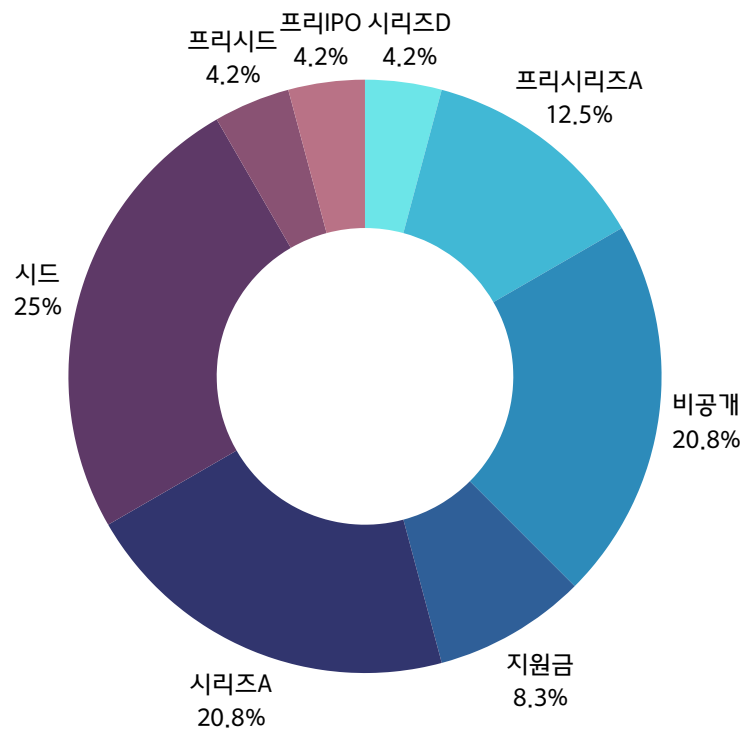
2026년 1월 26-30일 주간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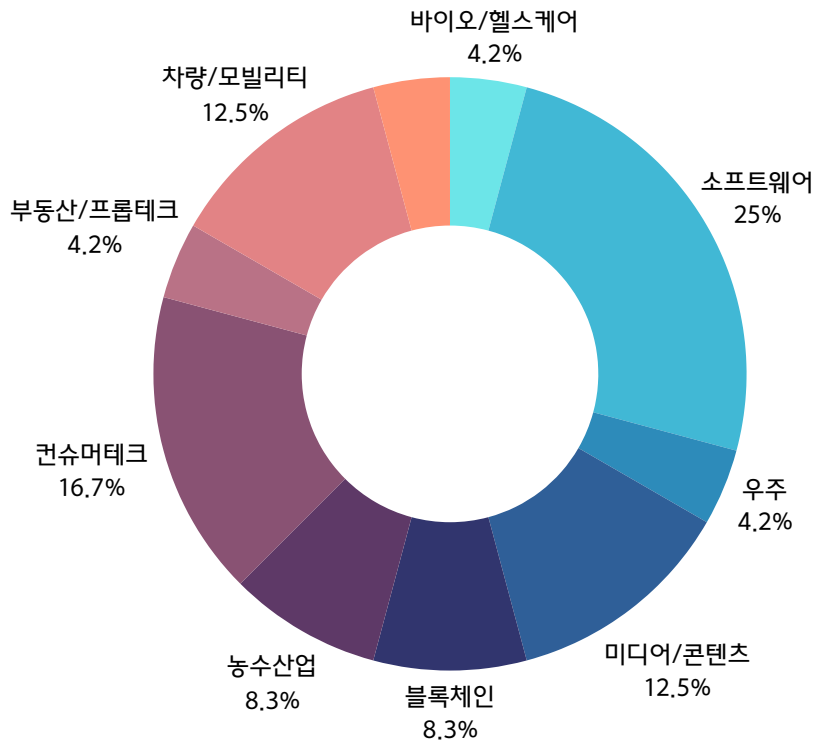
● 투자금



2026년 1월 26~30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24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3개 기업이 1,113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를 보면 시드가 25%로 가장 높았고 시리즈A 20.8%, 프리시리즈A 12.5% 순을 나타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소프트웨어가 25%를 차지한 가운데 컨슈머테크 16.7%, 차량/모빌리티와 미디어/콘텐츠가 각각 12.5%로 뒤를 이었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을 보면 AI 신약 발굴 플랫폼 기업인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가 317억원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플러그링크가 200억원 투자를, 자동차 리스 렌트 관리 플랫폼 기업인 디자인애프렉티스가 151억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는 등 차량/모빌리티 분야가 눈길을 끌었다.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 317억원 시리즈D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가 시리즈D 라운드를 통해 317억 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하며 누적 투자액 1,080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라운드는 당초 목표를 초과해 마감됐으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와 구름인베스트먼트-더블캐피탈이 주도했고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벤처투자사가 합류하면서 IPO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확보된 자금은 HPK1 저해제 글로벌 임상과 파킨슨병 치료제 FB-101, 후속 파이프라인 FB418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퍼스트바이오는 AI 기반 신약 발굴 플랫폼을 통해 면역항암제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이번 투자 성과는 기술특례상장을 앞둔 퍼스트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나이비 : 20억원 시리즈A



뮤직테크 스타트업 나이비가 시리즈A 라운드에서 총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JB인베스트먼트가 20억 원을 집행해 절반을 책임졌고, 다수의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가 합류했다. 2017년 설립된 나이비는 K팝 아티스트와 음악 지식 재산권(IP)을 단순 유통 자원이 아닌 장기적 가치 자산으로 관리·운용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핵심 솔루션 ‘플램(PLAM)’은 팬 반응과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IP 활용도를 높이는 서비스로, 출시 1년 만에 50여 개 엔터테인먼트사를 고객으로 확보하며 매출이 500% 성장했다. 나이비는 외부 IP 사업과 자체 IP 제작을 병행하며 장기적 자산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공연 IP와 연계한 실물 굿즈 서비스 ‘오브젝트(OBJEM)’을 통해 글로벌 투어와 연결된 수익 모델도 확장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나이비는 음악 IP 밸류업, 자체 제작, 부가사업 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며, 주요 플랫폼 기업 및 애드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트리플오스 : 5억원 프리시리즈A



트리플오스가 원스톱 인공지능(AI) 플랫폼 ‘올댓에이아이(ATA)’를 앞세워 프리A 라운드에서 5억 원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캡스톤파트너스가 단독 참여했으며, ‘성장금융 캡스톤 2025 딥테크 디캠프 투자조합’을 통해 집행됐다. 트리플오스는 챗GPT, Gemini, Claude 등 글로벌 대형언어모델(LLM)을 하나의 구독으로 통합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기업용 AI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메가스터디와 협력해 연간 60만 명 규모 수험생에게 학습용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출판 분야에서는 ‘레페토AI’를 통해 맞춤형 저술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투자로 트리플오스는 대형 고객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ATA 솔루션의 산업별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교육·출판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AI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일반 사용자 시장 진입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트리플오스가 확보한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빠른 레퍼런스 축적 속도를 경쟁력으로 평가하며, 향후 추가 계약에 따라 매출과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크로스앵글 : 100억원

CrossAngle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앵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로 앵글은 독자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술과 공시 인프라를 제도권 금융과 결합하며 웹3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 양측의 협력은 지난해부터 논의돼 왔으며,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식화됐다. 첫 협력 단계로 앵글은 데이터 API를 한화투자증권에 제공해 시세, 공시, 리서치, 온체인 데이터 등 핵심 지표를 금융 플랫폼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신뢰성 높은 가상자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앵글은 이번 투자금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며, 제도권 금융과 웹3 생태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메텍홀딩스 : 20억원 시리즈A



메텍홀딩스가 가축의 메탄 배출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독자 기술을 앞세워 시리즈A 라운드에서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라운드는 에이스톤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참여해 10억 원을 책임졌으며, 더웰스인베스트먼트와 기타 액셀러레이터가 합류했다. 메텍홀딩스의 핵심 경쟁력은 반추가축의 위 내부에서 메탄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캡슐로, 세계 최초로 장내 발효 메탄을 수치화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회사는 미국 농무부와 브라질 정부의 기술 검증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미국 축산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순천대, 건국대 동물병원과 협력해 메탄 측정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분위기지만, 미국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 정책 변화가 잠재적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메텍홀딩스는 기후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점에 기반해 사업을 확대하며, 축산업의 탄소 규제 대응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거 : 79억원 프리시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I 마케팅 스타트업 기거(GIGR)가 프리시드 라운드에서 약 7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라운드는 글로벌 VC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주도했으며 미래에셋벤처투자과 다수의 엔젤 투자자가 참여했다. 기거는 멀티 에이전트 AI를 기반으로 광고 기획부터 제작, 실험, 성과 분석, 개선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난해 출시한 첫 제품 ‘플레이애드(Playad)’는 이미지와 영상, 인터랙티브 광고를 아우르는 AI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으로, 일부 사례에서 광고 제작 비용을 최대 90% 절감하고 유저 확보 효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게임과 커머스 분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디자인앤프랙티스 : 151억원 시리즈A



자동차 리스·렌트 관리 플랫폼 ‘차즘(Chazm)’을 운영하는 디자인앤프랙티스가 151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 190억 원을 달성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스톤브릿지가 리드 투자사로 참여했고 KB인베스트먼트, 퓨처플레이가 합류했으며, 현대자동차 계열 제로원벤처스, LX벤처스, 아부다비 소재 글로벌 투자사 쇼록 HQ가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다. 차즘은 차량 계약부터 운행, 반납, 유통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 리스·렌트 차량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회사는 반납 차량을 활용한 글로벌 유통·수출 사업을 일본과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시 1년 반 만에 회원 30만 명, 누적 거래액 1,180억 원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자인앤프랙티스는 자동차를 관리 가능한 소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넥스트레벨스튜디오 : 35억원 시리즈A



NEXT LEVEL
Studio

차세대 K-콘텐츠 전문 기업 넥스트레벨스튜디오가 3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IP 하우스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에스투엘파트너스, 위벤처스 등이 신규 투자자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기존 투자자로 참여했다. 회사는 콘텐츠 시장 투자 경색 국면에도 ‘회귀검가의 서자가 사는 법’ 등 독보적인 IP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 그리고 자체 개발 워크스페이스 ‘크레코’를 통한 제작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넥스트레벨스튜디오는 확보된 투자금을 오리지널 IP 라인업 확대와 영상·게임·굿즈 등 2차 사업화 가속화, 북미 및 일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파블로항공 : 110억원 프리IPO 브릿지



군집AI 기반 항공·방산 플랫폼 기업 파블로항공이 최근 프리IPO 브릿지 라운드에서 110억 원을 확보하며 누적 자금 조달 규모를 1,075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투자에는 대한항공과 LIG넥스원-IBK캐피탈 방산혁신펀드, 비하이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으며, 특히 비하이인베스트먼트는 초기부터 연속적으로 투자해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군집AI 기술의 고도화와 상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입되며, 회사는 상반기 기업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블로항공은 지난해 군집 자폭드론 전투체계를 공개해 주요 군에서 실증 성과를 얻었고, 방산 정밀가공 기업 '볼크'를 인수해 대량생산 체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방산 분야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2월 부산에서 열리는 '드론쇼코리아2026'에서 군집 자폭드론과 차세대 점검 드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이아이브 : 6억원 프리시리즈A



분산형 AI 클라우드 스타트업 에이아이브가 최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로우파트너스, AI엔젤클럽으로부터 6억 원 규모의 프리A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액을 21억 원으로 확대했다. 에이아이브는 중앙 데이터센터 대신 전 세계 유휴 GPU 자원을 연결해 활용하는 분산형 컴퓨팅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사 서비스 '에어클라우드'를 통해 전국 PC방 네트워크와 협력해 GPU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거점에 개인형 LLM 디바이스를 배치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40%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별도의 인프라 설정 없이 AI 모델 실행·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LG U+, 삼성,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에이아이브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겨냥한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셀스탠다드 : 30억원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기업 바이셀스탠다드가 코스닥 상장사 엑스페릭스로부터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계약은 엑스페릭스와 특허관리 자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바이셀은 2월 중 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엑스페릭스를 전략적 투자자로 맞이하게 된다. 엑스페릭스는 자회사 보유 지식재산권을 토큰증권으로 유통해 조각투자 시장을 선점하려는 구상이다. 바이셀은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일원으로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으로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엑스페릭스가 2000건 이상의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점은 바이셀의 사업 확장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바이셀은 이를 활용해 자사 플랫폼 '피스(PIECE)'에서 지식재산권 기반 토큰증권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플러그링크 : 200억원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플러그링크가 JKL크레딧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확보했다. 지난해 450억 원을 유치한 데 이어 1년 만에 이뤄진 이번 자금 조달은 빠른 성장세와 흑자 전환 성과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플러그링크는 첫 투자금으로 한화솔루션 충전 사업을 인수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했고, 누적 충전기 수를 3만5천여 기까지 늘리며 1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성장을 달성했다. 특히 이용률 개선을 통해 업계에서 드물게 EBITDA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경쟁사와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줬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추가 인수합병에 투입될 예정으로, 자금난에 빠진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볼트온 전략을 통해 업계 최상위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플러그링크는 전기차 보급 확대 흐름을 발판 삼아 오는 2029년 매출 2200억 원을 달성하고 기술 중심의 시장 재편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JKL크레딧은 플러그링크가 국내 충전 시장의 압도적 선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본과 네트워크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버추얼 IP 콘텐츠 기업 스콘이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최종 단계에 두고 있다. 이번 라운드는 총 85억 원 규모로, 현재 40억 원이 납입됐으며 내달 추가 45억 원이 유입될 예정이다. 현대기술투자자와 CJ인베스트먼트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스콘은 3년 연속 투자 유치에 성공하게 됐다. 스콘은 2018년 설립 이후 버추얼 캐릭터와 3D 콘텐츠 기술을 기반으로 버튜버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게임, 웹소설·웹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모션캡처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며 제작 인프라를 내재화한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매출은 2023년 5억 원에서 2024년 21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투자금은 기존 버튜버 IP 강화와 신규 IP 확보, 해외 진출에 투입될 예정이며, 게임·웹소설·웹툰·TCG 등 IP 확장 전략도 병행한다. 또한 AI 챗봇 서비스 등 신사업을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스콘은 성장 속도에 따라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코스닥 진입도 검토 중이다.

주간 체크 포인트

팁스 모집 시작...올해부터 최대 8억 지원한다=2026년 팁스(TIPS) 프로그램 모집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800개사로 확대하고 R&D 일반트랙의 지원 단가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사항> R&D 지원 대상 기업을 작년 대비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로 확대, 사업화 자금(비R&D)은 650개사를 선정. 팁스 도입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2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 의무 투자액 2억원으로 상향. 딥테크트랙 지원 대상을 '일반트랙 졸업 기업'으로 변경, 우수 졸업 기업에 3년 최대 15억원 후속 R&D 자금을 지원. 수도권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R&D 일반트랙 물량의 50%를 비수도권에 할당. 기후테크와 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물량의 10%를 우선 할당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가점 또는 필수 요건으로 평가에 반영. 테크 트랙 대면 평가를 2회에서 1회로 통합하고 비R&D 분야는 대면 평가를 서류 평가로 대체해 기업 행정 부담 완화.

2026년 1월 26-30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317억원	시리즈D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구름인베스트먼트-더블캐피탈 조합,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한국투자증권, 안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데일리파트너스, 미래에셋투자증권, CKD창업투자, 안다자산운용, 우리투자증권, 원티드랩파트너스
트리플오스	AI 플랫폼	5억원	프리시리즈A	캡스톤파트너스
파블로항공	항공 방산 플랫폼	비공개	기타(비공개)	대한항공
코드잇	HR 기술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나이비	뮤직 테크	20억원	시리즈A	JB인베스트먼트
크로스앵글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100억원	기타(비공개)	한화투자증권
메텍홀딩스	가축 메탄 배출량 측정	20억원	시리즈A	에이스톤벤처스,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넥스트레벨스튜디오	K-콘텐츠	35억원	시리즈A	에스투엘파트너스, 위벤처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피에로컴퍼니	IT 기기 구독·재유통	비공개	기타(비공개)	스파크랩, 씨엔티테크
포인트브레이크	스킨케어 브랜드	비공개	시드	알토스벤처스
이숲컴퍼니	이커머스 M&A 중개	비공개	시드	매쉬업벤처스, 테일벤처스
에일릿	실물자산 기반 AI 감정	비공개	지원금	프리팁스
디자인애프랙티스	자동차 리스·렌트 관리	151억원	시리즈A	스톤브릿지, KB인베스트먼트, 퓨처플레이, 제로원벤처스, LX벤처스, 쇼록 HQ
기거	AI 마케팅	79억원	프리시드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크루

				캐피탈
파블로항공	항공·방산 플랫폼	110억원	프리IPO	대한항공, LIG넥스원-IBK캐피탈 방산혁신펀드,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에이아이브	분산형 AI 클라우드	6억원	프리시리즈A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로우파트너스, AI엔젤클럽
에스와이유	AI 에이전트 자동화	비공개	시드	시리즈벤처스
키라앳컴퍼니	리워드형 금융 학습 서비스	비공개	시드	VNTG
미드바르	스마트팜 솔루션	비공개	프리시리즈A	넥스트드림엔젤클럽
소나버스	시니어테크	비공개	시드	한양대기술지주
바이셀스탠다드	토큰화 증권 블록체인	30억원	기타(비공개)	엑스페릭스
팀카이	고객 상담 AI 에이전트	비공개	시드	스파크랩, 뮤렉스파트너스
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 플랫폼	200억원	기타(비공개)	JKL크레딧
스콘	버추얼 IP 콘텐츠	40억원	시리즈A	현대기술투자, CJ인베스트먼트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